

‘브레이크 없는 감염’ 주말새 4000명 육박... 신생아까지

〈생후 45일〉

신규 586명 중 469명 대구 발생
누적 3736명, 대구·경북 3260명
정부, 환자 중증도 4단계로 구분
상태따라 입원·격리·관찰 하기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에 다가서고 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지 40일, 1000명을 넘어선지 불과 4일 만이다.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우려도 커졌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치료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4000명 육박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586명이 추가로 발생, 국내 확진자는 총 3736명으로 늘어났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86명 중 469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 경북지역에선 6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구, 경북지역 누적 환자는 3260명에 달한다. 특히, 대구 지



1일 대구시 중구 신천지대구 교회 일대에서 2작전 사령부 장병 50여명이 휴일도 잊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작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73%가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10명 환자가 추가 발생하며 누적 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났다. 전일 확진자 수가 813명이 늘어났는데 이어 이날도 580명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 26일 처음 1000명을 넘긴데 이어, 이틀만인 28일 2000명을 넘겼고, 다시 하루만에 3000명을 넘으며, 4000명을 바라보고 있다. 4일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경북에서는 생후 45일된 신생아

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확진자 가운데 최연수다. 아기의 엄마와 아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가족 모두가 감염된 상태다. 사망자도 18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84세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했다. 이 환자는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못받고 죽는 사람들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사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사망한 70세 여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74세 남성 역시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으로 이송돼 사망했다.

대구시와 방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 확진자 2569명 가운데 898명만이 입원 조치 됐고, 1662명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입원·격리·관찰 등 치료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방대본

에 따르면 대구시 확진 환자의 80~81%는 경증 환자로 진통, 해열제 외의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 없으며 대체로 자발적으로 완치된다. 나머지 20% 중 5% 가량만 기저질환 환자로 집중 치료를 요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확진자 전체를 다 입원 격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의견 협의를 거쳐왔다”며 “빨리 확정짓고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환자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환자뿐 아니라 경증환자를 위한 격리 치료시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증상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분류한 뒤 경증환자는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증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증 환자 대상의 격리 치료 시설을 마련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1월 소매판매액 3.1% ↓... 9년만에 최대폭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절벽’ 우려
‘본격영향’ 2월, 하락폭 더 커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의 약 5조8천억원, 이번 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α’를 통해 먼저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이후 소비 분위기가 반전을 꾀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엔 나온 소비 진작책이 일반적인 경기 보강 대책일 뿐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밀 수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기준으로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1% 감소했다. 구제역과 한파가 겹쳤던 2011년 2월(-7.0%)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



날 2월은 소비 감소세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올 게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첫째·둘째·셋째 주 숙박업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7.7%·-10.8%·-24.5%로 심각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연합뉴스

수은·대구銀 등 코로나 확산에 폐쇄 잇따라

확진자 발생에 비상업무계획 가동
직원 재택근무, 방역작업 등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수은권이 일부 지점 폐쇄를 넘어 본점까지 비상이 걸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본점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전일인 27일 저녁 본점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는데 따른 조치다.

수은은 긴급히 건물 전체를 폐쇄한 후 방역작업을 실시했고, 위기상황대책 본부를 가동해 800여 명의 본점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다만 자금지체, 시설 등 일부 필수 인력에 한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수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업무계획(BCP)을 즉시 가동하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당초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2차 및 3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 3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로 대학 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격리제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수은 내 밀접 접촉자 14명에 대한 감염검사 결과, 13명이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29일 방문규 행정 주재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날 2일부터 12일까지 전 직원을 3개조로 나눠 조별로 각각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수출입은행은 본점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향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시 갑작스런 본점 폐쇄나 직원 격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추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신·자금·IT와 같은 핵심부서의 근무장소는 본점과 대체사업장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에서는 DGB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이 문을 닫았다. 역시 본점 근무직원 한 명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다.

대구은행은 오전 중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1차 방역작업을 실시했으며, 주말동안 2차 방역도 추가로 실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약 700여명의 본점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했으며, 마감업무 등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인력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업무무를 처리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으로 확인된 지점 방역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와 폐쇄 등에 신속히 대처해 고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1본점은 2일부터 정상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지점폐쇄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점이나 본점도 언제 폐쇄될 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여의도영업부와 동일 소속 직원이 근무하는 출장소 여의파크(점)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7일 오후 KB국민은행 서여의도영업부를 방문했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우려가 있는 소속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되며, 해당 지점은 2일부터 파견 직원을 통해 업무를 재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점포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내 지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안상미 기자 smahn@

美 BOAML, 세계 성장률전망 2.8%로 하향

》1면 ‘세계증시 7000조...’서 계속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는 판단이다.

미국계 투자은행 브로커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는 코로나19의 충격 등을 고려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도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부진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3월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